

타이완

관광 격월간 2026 Jan-Feb.

no.64

COVER STORY

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

과거와 현재의 도시, 자이(嘉義)

철도의 역사와 하카 문화를 만나다

타이완의 최고급 골프장 네 곳

한국-타이완 직항 완전 정복

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

TAIWAN
WAVES OF WONDER



Table of Contents



특집 기사

02 Cover Story 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



Cover Story

18 모든 도시에는 이야기가 있다 자이 평범하고 익숙한 도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나다



24 특집 기사 철도와 하카 (客家) 마을이 만나는 지점 . 철도 기억을 따라 걷는 하카 산성 문화 산책

28 특집 기사 나이스 샷! 타이완의 최고급 골프장 네 곳을 둘러보다

30 농칠 수 없는 맛 가장 맛있는 오리 요리



모든 도시에는 이야기가 있다

34 내가 보는 한국 - 타이완 타이완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것

36 타이완 키워드 한국 - 타이완 직항 완전 정복

38 한국 - 타이완 핫이슈 완행 열차만 서는 작은 마을 : 타이완 작가 천쓰홍의 『귀신들의 땅』을 찾아서

41 타이완 · 풍경 · 시 사랑의 강

42 FOUNTAIN 신활수 (新活水) 누구나 카라오케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되는 곳 : 가오슝 쥐잉 용호탑 (龍虎塔)

창간일시 2012년 5월
발행호수 64
발행일자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대만관광협회 (台灣觀光協會) 회간
회장 / 발행인 簡余晏
명예회장 葉菊蘭
부회장 蘇成田, 凌璫, 莊豐如
편집고문 鍾逸寧, 陳婷妤, 張仲宇, 劉宇庭
발행 재단법인 대만관광협회
주소 타이베이 중사오동로 4 단 285 호 8F-1
TEL 886-2-2752-2898 FAX 886-2-2752-7680
E-mail yasir@tva.org.tw WEB www.tva.org.tw

발행처 故事 StoryStudio
총편집 涂豐恩
총감수 형소진
편집장 김이삭
기획 楊琇茹
편집 협력 林立文, 劉雅涵
번역 台灣北菱股份有限公司, 陳品芳, 김혜진
교정 陳佳纓
디자인 李世斌, ziyin
프로젝트 매니저 冉揚, 林宛蓁
주소 타이베이시 다둥구 청더로 1 단 8 호 7 층 1 실
TEL 886-2-2369-5966
E-mail contact@storystudio.tw
https://storystudio.tw/

대만관광협회 서울사무소 (교통부 관광청)
주소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 번지 경기빌딩 9 층 902 호
TEL 82-2-732-2357~8 FAX 82-2-732-2359
E-mail taiwan@tourtaiwan.or.kr
WEB www.tourtaiwan.or.kr

대만관광협회 부산사무소 (교통부 관광청)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72 907 호
TEL 82-51-468-2358 FAX 82-51-468-2359
E-mail busan@tourtaiwan.or.kr
WEB www.taiwantour.or.kr

인쇄 經緯印藝實業有限公司
판매가 NT\$180
ISSN 3080-3462



中華郵政北台字第 1866 號 執照登記為雜誌交寄



타이완관광청



FB 타이완홀릭



IG @taiwanholic_kr

COVER STORY

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

Part 2

타이완섬의 다산 (茶山) 기행 ⁽⁰⁶⁾

3 대 다산과 3 대 클래식 타이완 차

Part 1

타이완 차 (茶) 의 정석 ⁽⁰⁴⁾

타이완 사람들에게 차 (茶) 는 단순히 갈증을 달래는 음료가 아닙니다. 타이완의 일상과 문화가 깊이 우려난, 삶 그 자체다.



장 소 리 슷



Part 3

타이완 차의 탐험,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 ⁽¹⁴⁾

Part 4

차를 담은 일상, 현대 다석(茶席)의 우아한 멋 ⁽¹⁶⁾

손님을 맞이할 때 정성스레 차를 내어 대접하는 것은 물론,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결엔 늘 차가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여유를 가질 때, '서우야오차(手搖茶, 셰이커로 흔들어 만드는 타이완식 차 음료)'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뜨겁든 차갑든, 달든 달지 않든, 취향은 달라도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단순히 마시는 것을 넘어, 타이완의 차는 각종 요리나 디저트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변화한 도심이든, 고즈넉한 산이든, 발길 닿는 곳 어디서나 찻잔에 담긴 타이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타이완 차 (茶) 의 정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타이완 차 가이드



발효도 (發酵度) 에서 시작하는 , 나만의 타이완 차 취향 찾기

타이완 차는 차의 종류만 많은 게 아니다. 차 계열, 차나무 품종, 제다 (製茶, 차 제조 기술) 기술, 생산 지역 등 심오하면서도 방대한 지식을 요한다. 때문에 타이완 차를 처음 접하는 이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며 다양한 타이완 차 제품들 사이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 지 망설이게 된다. 사실 타이완 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즉 비발효차, 완전발효차, 그리고 부분발효차 (혹은 반발효차) 로 나눌 수 있다. 비발효차와 완전발효차는 육대 다계 (六大茶系) 중 녹차와 홍차에 해당하며, 부분발효차는 '청차 (靑茶)' 계열로, 우리에게 익숙한 '우롱차 (烏龍茶)' 라 불린다. 우롱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포종 (包種), 고산우롱 (高山烏龍), 동방미인

(東方美人), 홍우롱 (紅烏龍) 등 대중적인 차 종류로 다시 세분화된다. 타이완 차의 체계가 아직 낯선 초보자라면, 발효도부터 이해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풍미를 먼저 찾은 다음, 차나무 품종이나 생산 지역 등 심화된 단계로 점차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비발효차, 즉 녹차로는 술에서 뛰어난 향과 녹차 특유의 감칠맛 (旨味) 이 일품인 신베이 썬샤 (三峽) 지역의 '벽라춘 (碧螺春)' 이 가장 유명하다. 완전발효차인 홍차의 대표 주자는 닛토 (日東) 홍차의 발원지인 난터우 (南投) 위츠 (魚池) 의 '홍옥홍차 (紅玉紅茶)' 다. 타이차 (台茶) 18 호 '홍옥' 품종으로 만들어지며, 민트와 시나몬이 어우러진 독특한 품종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는 홍차 마니아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특별한 풍미다. 아울러 화롄 (花蓮) 의 '밀향홍차 (蜜香紅茶)' 역시 이름처럼 은은한 꿀 향과 깊고 부드러운 풍미로



글 / 린웨이징 (林蔚靜) 사진 / 장지취안 (張紀詮)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차인 홍우룡 (紅烏龍) 을 추천한다. 난터우 (南投) 루구 (鹿谷) 의 '동정우룡' 은 일본의 호지차 (焙茶) 와 풍미가 유사한 구수한 배화향이 특징이다. 최근 타이둥 루예 (鹿野) 에서 개발된 '홍우룡' 은 우롱차의 향과 홍차의 진한 맛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그 독특한 매력으로 근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를 찾았다면, 이제 다양한 차나무 품종의 차를 탐색해 볼 차례다. 난초를 닮은 청아한 향의 '청심우룡 (靑心烏龍)', 부드럽고 따뜻한 밀크 향이 매력적인 '금훤 (金萱)', 자스민과 치자꽃향을 담은 '사계춘 (四季春)', 그리고 옥란화 (玉蘭花) 향을 머금은 '취옥 (翠玉)' 까지. 각기 다른 품종의 차나무가 다양한 발효도의 제다 기법과 산지 등 여러 요소와 결합되면서 천의 얼굴을 지닌 풍미를 빚어낸다. 이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맛의 스펙트럼이 타이완 차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이다.

타이완 차 체험 : 시음부터 산지 기행까지

타이완 차에 입문하는 초보자라면, 커피를 처음 접할 때 블렌딩 원두부터 시도하는 것처럼 상품화된 '블렌디드 티'로 타이완 차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이완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졌다면, 싱글 오리진 원두를 맛보듯 산지별 단일 품종 차의 풍미를 비교해 보는 단계로 넘어가도 좋다. 타이완 차의 매력은 단순히 마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타이완 사람들의 일상 속에는 어디에나 차가 존재한다. 차를 활용한 요리와 디저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도 공간과 차품평회, 그리고 차 산지에서 직접 경험하는 제다 (製茶) 체험과 문화 체험까지, 타이완 차의 세계는 여행자가 발을 들일수록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